



박소현의 섹.시.토크

저녁을 짜게 먹은 게 화근이었다. 잠들기 전에 계속 물을 들이켰으니 꿈자리가 편할 리가 없다.

눈을 뜨긴 했지만 바로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침대 위에서 수상한 흔들림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순간 뺨이 뜨거워지는 곳에 아내가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뻘뻘하게 자위나 하고 있구나, 자위에도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는 법인데 남편의 지금 행동은 모든 아내들이 싫어하는 최악의 행동이었다.

더 화가 나는 건, 요즘 들어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매우 뜨악하다는 사실이다. 아내와의 관계에 충실하면서,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자위에 쏟아붓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하면서 고요한 밤 시간에 혼자 자위를 하는 사람이었으니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예의를 저버렸다고 해서 아내마저 그럴 수는 없었다. Y는 몸을 벌떡 일으켜 남편에게 망신을 주고 싶은 본능과 요의를 함께 다스리며, 남편이 자위를 끝내고 잠에 빠져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문제는 며칠 뒤 또 발생했다. 그날은 이유 없이 그냥 눈이 떠졌다. 역시 자정을 막 지난 시간이었다. 옆에서 나지막하게 공경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Y가 실눈을 뜨고 보니 역시나 남편이 몸을 돌리고 조용히(?) 자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잠을 이기지 못해 먼저 침실로 건너왔다. 남편은 보통 Y보다 한두 시간 늦게 잠들었다. 신혼 초에는 다른 취침시간 때문에 남편이 잠들어 있는 Y를 깨워 섹스를 하곤 했다.

관계에 소홀한 남편 잠자는 아내 옆서 자위 화를 낼까 타이틀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

고민하던 중에 Y는 답을 찾았다. 좀, 아니 많이 부끄러운 방법이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몸을 옆으로 돌리고 조용히 자위를 하고 있는 남편 등 뒤에서, Y도 자위를 시작했다.

나를 증거라고 생각했을 뿐 남편이 밤마다 자위를 하는지 꿈에도 몰랐다. '일단 오늘은 참자.' 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Y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근 눈을 감았다. 침대의 미묘한 움직임과 남편의 미세한 신음소리를 어둠 속에서 감지하고 있자니 역사가 무너졌지만,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아내 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세 번째 남편의 자위를 발각했을 때, Y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섹스를 하지 않은 지 어느새 3주를 넘어가고 있었다.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왜 나를 깨우지 않고 그렇게 혼자서 해결하냐고 물어볼까? 다짜고짜 이렇 거면 이혼하자고 해야 하나? 아니, 이 정도로 이혼하자고 하는 건 오버지.'

고민하던 중에 Y는 답을 찾았다. 좀, 아니 많이 부끄러운 방법이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몸을 옆으로 돌리고 조용히 자위를 하고 있는 남편 등 뒤에서, Y도 자위를 시작했다.

충분한 얼굴로 Y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본인이 생각해도 좀 섹시하다 싶은 목소리로 '같이 해'하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은 3주 만에 섹스를 했다. 그리고 그 섹스는 평소보다 몇 배나 좋았다. <연애칼럼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광우병 논란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라는 검색어가 때 아닌 인기를 누렸다.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광우병 관련 과담을 인터넷상에 전파한 네티즌 21명의 신원확인에 들어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청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수합니다."

'촛불집회 사법처리' 경찰청 홈페이지 자수글 폭주

다. 자수합니다.", "여기에 자수하면 되나요? 30대 아줌마도 자수합니다.", "우리 식구 다 자수합니다.", "국가 원수 모독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수합니다" 등의 글이 폭주하면서 한바탕 '자수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리터러 규모 7.8의 대지진에도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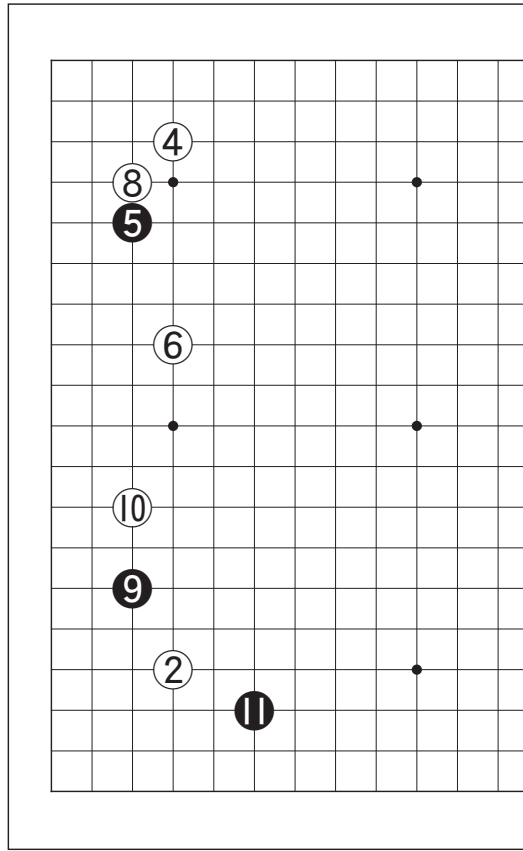
축구 선수들도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1일 박지성이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위권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승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모두 막을 내렸다.

리그가 끝나면서 이영표·설기현·이동국이 속속 귀국하면서 축구팬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박지성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입지가 불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이 확정된 뒤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



제4회 전국 아마 최강전 결승

제4회 전국 아마 최강전 결승. 드디어 대망의 제4회 전남도지사배 아마최강부 결승전이다.

시니어부에서는 박문홍 7단이 이 지역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결승까지 올랐던 심재욱 6단을 꺾고 주니어부 우승자와 겨루는 최종결승에 올라왔고, 주니어부에서는 송홍석 7단이 기라성같은 연구생출신의 강자들 숲을 뚫고 역시 최종결승전에 올라왔다.

이 지역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심재욱 6단은 박문홍 7단에게 꺾여 어렵게 공동3위에 만족해야 했다. 박문홍 7단은 모두 여섯차례나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강호중의 강호다.

시니어와 주니어의 대결 1부(1~11)

제4회 전국 아마 최강전 결승. 白 박문홍 7단, 黑 송홍석 7단. 반면 프로기사 못지않다는 연구생 1조 출신인 송홍석 7단은 88년생으로 아깝게 입단관문을 뚫지 못하고

아마추어로 전향하여 전년도부터 아마대회에 출전하자마자 전국체전, 미추홀배, 서동배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3관왕을 차지하고 단숨에 아마 7단을 인허받았다. 그야말로 아마바둑계의 떠오르는 태양이다.

객관적인 평가는 화려한 강자 박문홍 7단보다는 한창 떠오르고 있는 송홍석 7단이 다소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심재욱 6단은 "시니어중에서는 그래도 박문홍 7단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민진, 차민수 연습 행진 제동. 이민진 5단이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습대항전에서 차민수 4단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민진은 15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 6국에서 5연승 중이던 차민수를 상대로 267수 끝에 반집승을 거뒀다. 이민진은 초반부터 집을 불린 차민수에 맞서 차분한 포석을 펼쳤다. 중반 상변 접전에서 차민수의 대마에 치명타를 입힌 이민진은 꼼꼼한 끝내기를 곁들이며 승부에 중지를 찍었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자 10분30초 3회 덤 6집반으로 진행된다. 상급은 우승 7천만원이며 본선대국료 40만원이 지급된다. /오광복기자 kroh@

리빙센스

탈모를 예방하는 습관

- ▲올바른 식습관. 해조류와 녹색 채소, 검은콩 등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든 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인스턴트 식품과 당분이나 염분이 많이 든 식품은 피한다.
▲두피 마사지와 브러싱. 모근의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 손가락 끝쪽이나 끝이 둥글고 굵은 브러시로 두피를 가볍게 자극한다.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도 두피의 혈액 순환에 좋다.
▲햇볕 차단. 두피가 약하거나 탈모가 있는 사람이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두피에 염증이 생겨 탈모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로 두피를 보호한다.
▲스타일링제 사용 자제. 스프레이나 젤, 무스 같은 헤어 스타일링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모근을 막을 수 있으므로 두피 표면이 스타일링제가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5월 16일(음 4월 12일 丙戌)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161> 오하오우 니혼고 <1161> 니하오 쑹구위 <138> 한자 이야기 <778>

English lesson content: 'What time are you going to the game? 몇 시에 그 경기 보러 갈 거니?' with dialogue and grammar notes.

Japanese lesson content: '彼女(かのじょ)でもできたのかな 애인이라도 생겼나?' with dialogue and grammar notes.

Chinese lesson content: '你穿的衣服好漂亮! 당신이 입은 옷은 매우 예쁩니다' with dialogue and grammar notes.

Chinese lesson content: '河魚腹疾(하어복질) 강하, 고기어, 배복, 병질' with text and grammar notes.